

# 한달새 대통령 두번 만난 김택진... 혁신창업 '아이콘'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지난달 15일 기업인들과 간담회  
어제도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  
'벤처투자·혁신창업' 주제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가 새해를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 달 사이에 '두 번' 만남을 가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과 지난달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 때와 7일 '1세대 벤처기업인 간담회' 때 만났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만남은 모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김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초대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벤처투자'와 '혁신창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1세대 벤처인들로부터 '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에도 문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

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열렸고 김 대표가 참석한 것이다. 이때 김 대표는 문 대통령 옆 자리에 착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옆에 젊은

기업인들을 배석하게 됐다. (또) 김 대표는 게임·IT기업 대표주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한 달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김 대표는 1967년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대표는 대학 재학 당시 '한글과컴퓨터(소프트웨어)'를 만든 장본인 중 한명이다. 그는 1997년 엔씨소프트를 창업,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이 게임) '리니지'를 출시해 유명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한 달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김 대표의 행보는 4대 그룹 총수들이 밟지 못한 행보이기도 하다. 실제 '채계 서열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새해 들어 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두 번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 회장이 새해 들어 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

은 지난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아직까지 전무다. 비공식 만남으로는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 신년사 행사가 있을 뿐이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다른 4대 그룹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고용 무게추'를 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김 대표를 비롯해 1세대 벤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혁신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그런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 올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7500명 뽑는다

LH 1000명, 한전 900명 등 채용  
106개 기관 중 절반 상반기 진행



올해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가 7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턴 채용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잡코리아가 주요 공공기관 인턴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6개 공공기관에서 7531명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분야별 인턴 채용 규모는 ▲SOC(2078명), ▲고용보전복지(1169명), ▲금융(1081명) 분야 순으로 많았다.

개별 기관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주거복지보조, 사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할 체험형 인턴 1000명을 뽑는다. 이외에 '한국전력공사

(900명)', '한국철도공사(430명)', '한전KPS(300명)', 'IBK기업은행(300명)' 등도 올해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가 큰 기관으로 꼽혔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2019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통해 기술, 사무 분야에서 총 75명의 인턴을 채용한다. 공통 응시자격은 당사 기준 경력사유

가 없는 자, 입사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입사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등이다. 입사지원은 12월 18일까지 한국전력기술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공기관 인턴 채용 시기는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06개 기관의 119개 채용 일정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1~6월)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이 49.6%로 과반수에 달했다. 월별로는 5월에 채용을 시작하는 기관이 1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반기(7~12월)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중 26.1%였고, 아직 채용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은 24.4%였다.

한편, 올해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인턴 채용 정보는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 인턴채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

## 초·중·고 400곳에 76억 투입 '창업교육'

중기부 '청소년 비즈쿨' 신청 접수

정부가 올해 76억원을 들여 4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창업·경제교육에 나선다.

특히 기존의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로봇, 드론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체험·실습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2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비즈쿨(Bizcool)'이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비즈쿨은 기업가정신

을 함양하기 위해 창업·경제교육, 문제해결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전문가특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7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올해 비즈쿨 지원사업은 100만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찾아가는 체험교실 등을 통해 로봇, 드론, 아두이노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즈쿨 교사들의 건의를 반영해 지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1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해 1년 연장하는 방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산업부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이달 출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제조업 질적 성장 되돌아볼 시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지만, 그간 우리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도 2월 중순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3개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5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상 분쟁 확산에 대응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중 통상분쟁의 기회요인 활용 ▲미국 제232조 조사결과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WTO 개혁 작업 동참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근로자 가요제' 4월19일 광파르

근로복지공, 내달 24일까지 예심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근로자 가요제 본선대회를 오는 4월 19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올해 40회를 맞이하는 근로자문화예술제의 한 분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 6개월 이내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최되는 근로자 가요제는 2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참가 방법으로 예심 및 준 결선을 실시하며, 4월 19일 여의도 KBS홀에서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 후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에 KBS1 TV를 통해 방영된다.

한편, 제40회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가요제 이외에도 연극제, 문학제, 미술제, 영화제를 함께 개최한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가요, 연극, 문학, 미술, 영화 등 5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며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 1000만원은 문학제에서 시상하며, 국무총리상 700만원은 가요제에서 시상하고, 각 부문 대상 등 178명(팀)에게 총 상금 11,9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전국 구제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식품부, 구제역 '심각'단계... 방역 총력

일주일이 고비... 고강도 소독 실시

지난 1월 31일 중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을 구제역 방역의 고비로 판단,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이 끝나고 축산 관련 시설 대부분이 영업을 재개하는 7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충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설 귀경 이동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고강도의 특별 방역 조치를 취해 다행히 아직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역 잠복기간(최대 14일) 중이고,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약 4000만 명 이상의 귀성객과 차량이 이동해 추가 확산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인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축협, 농협은 물론 지역의 농업경영체, 과수 농가도 직접 참여해 해당지역의 축산농장, 도축장, 분뇨처리 시설 등 축산관계시설 전체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연휴 이후의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을 희망하는 도축장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시군 소독 전담관을 파견해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대한 소독과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